

#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시행

### 장수군, 20개 사업단 1269명... 공익형·시장형 2개 분야

장수군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기 힘든 노인들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12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에서 시행한다.

장수군은 현재 인구의 30%인 7,1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전라북도 노인인구 18%인 것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총 20개 사업단 1,26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총 3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7개 읍·면사무소와 위탁 수행기관 2개소(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장수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된다.

일자리 참여자는 1일 3시간 월 10일간의 근무조건으로 공익형 기준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게 된다.

올해 추진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2개 분야이며, 공익형 사업으로 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게이트



장수군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12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에서 시행한다.

불장 체육강사 파견, 스포츠 교통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시장형 사업은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지역농사,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 무주군 일자리 정책도 우수

###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교육부장관 표창

무주군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일자리창출 노력이 인정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와 창업 설명회 개최, △사회적 기업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일자리창출과 지원 사업 발굴에 주력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창업 상담창구 개설, △창년 10명을 농촌 활력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동 전문가로 육성해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 저하와 공동체 붕괴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1억 5천만 원 사업비 확보)돼 청년들 대상 예비창업자 교육과 초기사업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과 마을발전 정책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주민공동체 활성화 위한 사업들을 홍보했으며, 천마와 머무와인 등 반딧불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성수면, 담당민원 실명제 추진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최근 면장이나 부면장 등 직위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부착했던 명패를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했다.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 이름과 주요 업무를 기재한 것이다.

직원들도 명패 제작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더욱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이해석 면장은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담당직원을 잘 찾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명패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재난 취약시설 현장점검

진안군은 13일 관내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항로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관내 근로자아파트, 신용주택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진안군은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 등 총 800개 시설에 대하여 공무원, 시설관리주체, 안전관리자분단, 현장관찰단, 시설물 소유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621개소 점검을 완료해 77%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올해부터는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에 대해 안전점검 설명제와 사후 확인 설명제를 적용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 허위로 조사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해빙기 도로시설물 정비

장수군은 불철 해빙기인 14일부터 30일까지 주요 도로시설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골삭기 등 각종 건설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도로정비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비는 장수군내 166개 노선 621km 전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물과 낙석, 붕괴위험지역 도로파손 등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응급대응을 마련하고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에는 급경사와 급커브, 임야 인접도로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임국도 13호선 비행기재 등에 대해 낙석붕괴와 도로파손을 집중 점검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봄철 파종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 장수군, 13일부터 2개월간

장수군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13일부터 2개월간 파종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파종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해 출몰·피해신고 접수 시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펼치게

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조준열 전 마령면장, 군의원 출마 선언

조준열(58·사진) 전 마령면장은 13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13동시 지방선거에서 진안군 가선거구(진안읍, 마령면, 성수면, 백운면)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마령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졸업(석사), 진안군보건소장, 안전면장, 마령면장 등 37년의 공직생활에서 녹조근정훈장, 청백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조 씨는 출마의 변에서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3월 2일부터 출산장려금 증액

### 첫째와 둘째 300만원 · 셋째부터 1000만원... 일시금 100만원 · 나머지 분할 지급

무주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첫째와 둘째는 출산하면 3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0회 분할지급)을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1천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0회 분할지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60만 원, 넷째 48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총 600만 원

을 지급해왔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4억여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미취학(만 4~5세 미만) 아동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연령별 월 10~20만 원 정액지원)을 지원하며 0~5세 아동 800명(소득하위 90%의 가정)에게는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사업(9월부터 시행)에는 총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한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품목은 유축기와 흔들침대, 보행기 등으로, 대여기간은 유축기가 1개월(대기자 없으면 1달 연장 가능), 흔들기의와 보행기 3개월이다.

보건의료원 이해자 건강증진 담당은 "사용 한 달 전에만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에 예약(320-8241)해 주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상향 지원

진안군은 13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일관광객의 경우는 내국인 20인 이상 시 1인당 5,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시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진안에 숙박하면서 단체관광을 하는 경우 1박은 내국인 20인 이상 시 1인당 2만원, 외국인 10인 이상 2만5,000원, 수화여행단 20인 이상 1만5,000원

이며, 2박 이상은 내국인 3만원, 외국인 4만원, 수화여행단 2만5,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마산 벚꽃성수기(4월10~30일)에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은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당일관광은 유료관광지 1곳, 관내 음식점 1식 이상이고, 숙박관광의 경우 유료관광지 2곳, 음식점

2식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진안군 관광 7일전 사전계획서와 관광일정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을 군청 관광개발사업소 팩스 등을 통해 사전협의 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방문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익월 지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